



## 올해엔 “가고 싶은 소규모 해수욕장” 찾아봐요

- 등명 · 선유도 · 하트 · 괄지 등 경관 좋고 한적한 4곳 선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8년도 우수해수욕장 20선”과 “가고 싶은 소규모 해수욕장 4선”을 선정·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349개 해수욕장중 시·도에서 추천한 55개 (우수 45, 소규모 10)해수욕장에 대하여 운영·관리분야, 환경·수질·경관분야, 안전관리분야, 시설분야 등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해수욕장으로는 부산(해운대, 광안리, 송도), 울산(일산), 충남(대천, 무창포), 강원(경포, 망상, 속초, 화진포, 낙산), 전남(명사십리, 율포), 경북(고래불, 장사), 경남(상주, 구조라), 제주(이호, 표선, 중문)이 선정되었다. 한편 올해 처음 도입된 가고싶은 소규모 해수욕장은 강원(등명), 전북(선유도), 전남(하트), 제주(괄지)가 선정되었다. 등명해수욕장의 경우 맑은 물과 송림으로, 괄지해수욕장은 용천수 노천탕으로, 선유도 해수욕장은 신선이 놀던 곳이라는 이름에 어울릴만큼 풍광이 빼어나며, 비금도에 소재하는 하트 해수욕장은 해변이 하트 모양으로 ‘봄의 왈츠’라는 드라마 촬영장으로 유명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까지는 우수해수욕장만 선정하였으나 대규모 해수욕장에 편중 선정됨에 따라 금년에는 전국 해수욕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한적하면서도 경관이 우수한 소규모 해수욕장도 같이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해수욕장에는 시설개선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008년도 해수욕장 평가결과 대부분의 해수욕장의 경우 각종 이용료·사용료 등을 무료화 또는 경감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고객위주의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 시설 확충 등 소외계층의 이용편의를 대폭 확대한 걸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해수욕장을 4계절 국민 휴양지로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기업 등 민간부문의 해수욕장 환경관리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운대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수욕장 시민참여관리제도(BAP)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